

대성동 마을 35년 멈춘 '개발시계' 재깍~재깍~

〈DMZ 내 유일한 동네〉

민·관 협력 개발프로젝트 추진 KT 지원으로 '기가사랑방' 오픈 공회당은 마을 기록관으로 조성 주택 보수·상하수도 개선 등 전개

비무장지대(DMZ) 안에 있는 유일한 마을로 35년 동안 개발이 멈췄던 '대성동 자유의 마을'이 민·관 협력으로 새 단장을 한다.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조산리 대성동 마을은 40여가구 200여명의 주민들이 주로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다. 1953년 7월 휴전협정에 따라 DMZ 공동경비구역(JSA) 남쪽에는 대성동마을이 군사분계선 너머 북한 쪽에는 기정동마을이 들어섰다. 남북분단의 산물이자 상징인 대성동마을은 유엔사령부의 허가를 받아야 출입할 수 있는 '외딴섬'이었다. 1978~80년 정부 주도의 종합개발계획에 따라 주택개량이 이뤄진 것을 마지막으로 개발에서 오랫동안 안 소외됐다. 그러는 사이 개인 소유가 아닌 주택은 점점 노후화됐고 상하수도와 도로, 통신 등 기반시설도 열악해 주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이런 대성동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민·관이 힘을 합쳤다. 마을주민이 주체가 되고 전문가와 기업, 정부와 지자체,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통일맞이 첫마을 대성동 프로젝트'를 추진키로 한 것이다.

23일 오후 대성동마을에서는 행정자치부 지역발전위원회 경기도 파주시 등 정부·지방자치단체와 한국해비타트 LH 새마을금고중앙회 청호나이스 KT KT&G 등 7개 민간단체·기업 관계자, 마을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성동 프로젝트 관계기관 협약식이 열렸다.

프로젝트 자문위원장인 정진국 한양대 교수는 "삶의 터전으로서 마을의 자연성을 회복하고 더 이상 육지 속의 고립된 섬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프로젝트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대성동마을은 본격적인 새 단장에 들어간다. KT의 지원으로 기존 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해 만든 최첨단 '기가(GiGA) 사랑방'이 이날 문을 열었다. 오랫동안 방치된 마을 공회당은 마을기록전시관으로 탈바꿈해 연내에 개관할 예정이다. 또 향후 2~3년에 걸쳐 노후주택을 보수하고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과 마을 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총 사업비는 50억원가량으로 정부와 지자체 예산, 기업·단체의 후원, 주민 자부담 등으로 충



23일 경기도 파주시 비무장지대(DMZ) 내 대성동 마을회관에서 내려다본 대성동마을 모습. 군사분계선이 있는 숲 너머로 안개가 걸려 있는 북한 기정동마을이 희미하게 보인다. 작은 사진은 정중섭 행정부 장관(앞줄 왼쪽 세 번째) 등 내빈들이 마을을 새단장하기 위한 '대성동 프로젝트 업무 협약식'을 가진 뒤 기념촬영하는 모습.

당되며 성금 모금 캠페인도 병행한다. 대성동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강연 등을 진행하는 '교육 재능기부-멘토링 사업'도 추진된다. 행정부는 마을 주민들이 가뭄 걱정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내년부터 임진강에서 농업용수를 끌어

올 수 있는 항구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정중섭 행정부 장관은 "대성동마을이 '통일맞이 첫마을'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파주=글·사진 라동철 선임기자 rdchui@kmib.co.kr 24.4 X 15.7 cm

DMZ '대성동마을' 35년 만에 새단장

『통일맞이 첫마을 프로젝트』 민·관 협약 주택개선·교육 등 지원... 국민모금도 추진

경기북부 비무장지대(DMZ) 내 대성동 마을 단장을 위해 정부, 경기도, 기업, 국민이 손을 맞잡았다.

경기도는 23일 대성동마을에서 '통일맞이 첫마을' 대성동 프로젝트 관계기관 협약식을 했다. 이 자리에는 정중섭 행정자치부 장관, 이원종 지역발전위 위원장, 김희경 도 행정2부지사, 이재홍 파주시장 등 정부 관계자와 한국해비타트, LH새마을금고중앙회, 청호나이스, KT, KT&G, 네이버 등 7개 기업 관계자, 대성동마을 김봉규 이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식은 정부기관과 기업들이 대성동마을에서 협약을 체결한 첫 번째 사례로 '80년 대성동 종합개발 계획' 이후 35년 만에 체계적인 마을 발전계획이 추진되는 것이다.

사업계획에 따라 공회당은 마을기록전시관으로 연내 리모델링, 개관할 예정이며 현재 국가기록원과 파

주에서 관련 기록들을 발굴·확보하고 있다.

노후주택보수, 상·하수도 및 같은 기반시설 정비와 마을 경관개선 등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사업비는 중앙부처와 경기도, 파주시 등 지자체 지원 및 일부 자부담하고 전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기업과 후원과 국민의 성금을 모금하기로 했다.

이번 사업에는 민간기업, 공기업, NGO단체 등 모두 7개 기업이 참여, 성금 모금과 자금·시설지원 등을 추진한다. 프로젝트를 계기로 대성동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 재능기부-멘토링' 지원사업도 추진하며 경기도(대성동마을추진단) 중심으로 학생들에게 다양한 멘토링 교육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희경 부지사는 "분단 70년이 되는 해에 민관이 함께 대성동 마을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한다"며 "경기도는 협약 기관과 함께 대성동마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DMZ 일대의 조화로운 보전과 합리적인 개발을 통해 미래 세대를 위한 통일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창희기자



23일 대성동마을에서 통일맞이 첫마을 대성동 프로젝트 관계기관 협약식이 열린 가운데 정중섭 행정자치부 장관, 김희경 경기도 행정2부지사, 이재홍 파주시장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홍준기 기자

경기도 파주 대성동마을 주민들이 23일 대형 태극기가 걸린 마을회관 앞에 모였다. 이날 주민 중 29명이 통일나눔펀드 기부를 약속했다.

대성동 주민 “北과 인접해 통일 더 기대돼”

경기도 파주시 비무장지대(DMZ) 내 대성동 마을 주민들이 통일나눔펀드에 기부를 약속했다. 김동구 이장 등 29명은 “통일나눔펀드에 한 달 1000원씩이라도 힘을 보태고 싶다”는 뜻을 전해왔다. 김 이장은 “북한과 인접한 우리야말로 통일에 기대가 큰 곳”이라고 말했다.

대성동은 판문점에 인접한 마을로, 1997년 주민 2명이 북한군에 납치되기도 했다. 일반인 접근이 어려운 접경지대여서 개발도 더뎠다. 그만큼 주민들이 통일

을 바라는 마음은 간절하다.

행정자치부는 이날 대성동 초등학교에서 정종섭 행자부 장관, 이재홍 파주시장, KT·KT&G·네이버 등 7개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통일맞이 첫마을 대성동 프로젝트’ 관계기관 협약식을 개최했다. 내년부터 가구당 5000만원 범위 내에서 노후 주택 보수 자금을 지원하고, 상·하수도 같은 기반 시설을 정비하는 등 본격적으로 마을 환경 개선 작업에 나서게 된다.

파주=홍준기 기자

11.5 X 13.0 cm

DMZ 대성동마을 35년만에 새 단장

정종섭 장관 협약식

비무장지대(DMZ) 유일한 민간인 거주지인 경기 파주 대성동마을이 35년만에 새단장한다.

행정자치부는 23일 대성동마을에서 ‘통일맞이 첫마을 대성동 프로젝트’ 관계기관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종섭 행자부 장관, 이원종 지역발전위원장, 이재홍 파주시장, 김희겸 경기도 행정2부지사, 김동구 대성동마을 이장과 주민, 한국해비타트·새마을금고중앙회·청호나이스·LH·KT·KT&G·네이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대성동마을은 6·25 전쟁 후 정전협정에 따라 남·북이 DMZ 안에 민간인 거주지를 하나씩 두기로 합의하면서 북쪽의 기정동마을과 함께 조성된 것이다.

지난 1980년 주택개량사업 이후 장시간 흘러 노후한 주거환경을 개선해 달라는 주민들 요구가 지난 수년간 계속됐다. 정 장관은 지난 1월 대성동마을을 방문해 지원 약속을 했다.

대성동 프로젝트에 따라 세대당 5000만원(자부담 1000만원 포함) 범위에서 주택보수비용이 지원된다. 행자부와 지역발전위원회, 경기도와 파주시는 기반시설 정비와 마을 경관개선을 2~3년간 추진한다.

대성동 프로젝트에 힘을 보태는 국민모금도 시작했다.

한국해비타트 누리집(www.habitat.or.kr)과 인터넷포털 네이버의 기부사업 ‘해피빈’을 통해 대성동 프로젝트에 기부할 수 있다. 정부가 운영하는 DMZ 정보 포털 디엠지기(www.dmz.go.kr)에서도 재능·현물 기부 신청을 할 수 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10.2 X 11.8 cm

대성동 마을 새단장

<파주 DMZ내 민간인 거주지>

민·관협력 프로젝트

35년만에 종합계획 수립
행자부, 관계기관 협약식
도·시, 시설정비 경관개선
인터넷 국민모금 운동도

비무장지대(DMZ) 안의 유일한 민간인 거주지인 대성동 마을을 35년만에 탈바꿈시키기 위해 주민, 전문가, 기업, 정부가 뭉쳤다.

행정자치부는 23일 대성동 마을에서 '통일맞이 첫마을 대성동 프로젝트' 관계기관 협약식을 가졌다.

협약식에는 김동구 대성동 마을 이장과 주민, 한국해비타트·새마을금고중앙회·청호나이스·KT·K

T&G·네이버 관계자, 정종섭 행자부 장관, 이원종 지역발전위원장, 이재홍 파주시장, 김희겸 경기도 행정2부지사, 이재영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통일맞이 첫마을 대성동 프로젝트는 1980년 대성동 종합개발계획 이후 35년만에 추진하는 마을 종합발전계획이다.

1980년 주택개량사업 이후 장시간이 흘러 노후한 주거환경을 개선해 달라는 주민들 요구가 최근 몇년간 계속돼 왔고 정종섭 행자부 장관이 올해 1월 대성동 마을을 방문, 지원을 약속했다.

대성동 프로젝트에 따라 가구당 4천만원 범위에서 주택보수비용이 지원된다.

행자부와 지역발전위원회, 경기

도와 파주시는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 정비와 마을 경관개선을 2~3년간 추진한다. 방치된 마을 공회당을 개축한 마을기록전시관은 올해 중에 개관한다.

대성동 프로젝트에 힘을 보태는 국민모금도 시작했다.

한국해비타트 누리집(www.habitat.or.kr)과 인터넷포털 네이버의 기부사업 '해피빈'을 통해 대성동 프로젝트에 기부할 수 있다.

정부가 운영하는 DMZ 정보포털 디엠지기(www.dmz.go.kr)에서도 재능·현물 기부 신청을 할 수 있다.

대성동 프로젝트에는 한국해비타트를 포함 7개 민간단체와 기업이 참여한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15.1 X 15.0 cm



대성동 프로젝트 업무 협약식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앞줄 왼쪽에서 세번째) 등 참석내빈이 23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비무장지대(DMZ) 내 대성동 마을에서 열린 대성동 프로젝트 업무협약식에서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17.0 X 10.9 cm

파주 대성동 마을 35년만에 새단장

행자부 '대성동 프로젝트' 협약

지난 35년간 개발이 멈췄던 비무장지대(DMZ) 내 유일한 민간인 거주지역 파주 대성동 마을이 새롭게 태어난다.

행정자치부는 23일 대성동마을에서 '통일맞이 첫마을' 대성동 프로젝트 관계기관 협약식을 열었다.

협약식에는 정종섭 행자부 장관과 이원종 지역발전위원장, 김희겸 도행정2부지사, 이재홍 파주시장을 비롯해 한국해비타트, 새마을금고중앙회, 청호나이스, LH, KT, KT&G, 네이버 관계자, 김동구 대성동 마을 이장 등이 참석했다.

이 프로젝트는 1980년 대성동 종합개발계획 이후 35년만에 추진되는 마을 종합발전계획이다.

대성동 마을의 낡은 주택과 상·하수도와 같은 기반시설을 재정비, 통일맞이 첫 마을로 관광명소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성동마을은 6·25 전쟁 후 정전협정에 따라 남·북이 DMZ 안에 민간인 거주지를 하나씩 두기로 합의하면서 북쪽의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정비
낡은 주택 보수비용도 지원

통일맞이 첫 마을로 관광명소화
'해피빈' 등 통한 국민모금도

기정동마을과 함께 조성된 곳이다.

1980년 주택개량사업 이후 장시간이 흘러 노후한 주거환경을 개선해달라는 주민들 요구가 지난 몇년간 계속됐고,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올해 1월 대성동마을을 방문해 지원을 약속했다.

대성동 프로젝트에 따라 우선 1959년에 건축된 공회당을 마을기록전시관으로 리모델링해 올해 중 개관한다.

마을의 역사와 현재 주민들의 생활 모습을 전시·보존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든다는 복안으로 현재 국가기록원과 파주시에 전시 기록을 발굴·확보하는 중이다.

가구당 4천만원 범위에서 주택보수비용이 지원된다.

행자부와 지역발전위원회, 도와 파주시는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정비와 마을경관개선을 2~3년간 추진한다.

대성동 프로젝트에 힘을 보태는 국민모금도 시작했다.

한국해비타트 누리집(www.habitat.or.kr)과 인터넷포털 네이버의 기부사업 '해피빈'을 통해 대성동 프로젝트에 기부할 수 있다.

정부가 운영하는 DMZ 정보 포털 디엠지기(www.dmz.go.kr)에서도 재능·현물 기부 신청을 할 수 있다.

정종섭 장관은 "이 프로젝트는 마을주민이 주체가 되고, 전문가와 기업 및 일반국민이 동참하며 정부와 지자체가 이를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



23일 오후 파주시 군내면 대성동마을에서 열린 '통일맞이 첫마을' 대성동 프로젝트 관계기관 협약식에서 정종섭 장관을 비롯, 이원종 위원장, 김희겸 행정2부지사, 이재홍 시장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DMZ 대성동 마을 35년만에 새단장

행자부·도 '통일맞이 첫마을 프로젝트' 가동

삶의 터전·마을 자연성 회복

35년간 개발이 멈춰버린 대성동 마을을 새롭게 단장하기 위한 통일맞이 첫마을 DMZ 대성동 프로젝트 사업이 진행된다.

23일 오후 2시 대성동마을에서는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을 비롯, 이원종 지역발전위 위원장, 김희겸 경기도행정2부지사, 이재홍 파주시장 등 정부관계자와 한국해비타트, LH새마을금고중앙회장, 청호나이스, KT, KT&G, 네이버 등 7개 기업 관계자, 대성동마을 김동구 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식은 정부기관과 기업들이 대성동마을에서 협약을 체결한 첫 번째 사례로 80년 대성동 종합개발계획 이후 35년만에 체계적인 마을 발전계획이 추진될 전망이다. 이날 협약식에서 대성동 프로젝트 자문위원장인 정진국 교수(한양대학교, 건축학부)는

“미화나 치장보다는 삶의 터전으로서 마을의 자연성을 회복하는 것과 더 이상 육지속의 고립된 섬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핵심”이라며 대성동마을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김희겸 행정2부지사는 “분단 70년이 되는 해에 민관이 함께 대성동 마을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한다”며 “경기도는 협약기관과 함께 대성동마을을 적극 지원하고 DMZ 일원의 조화로 온 보전과 합리적인 개발을 통해 미래 세대를 위한 통일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DMZ 대성동 프로젝트 사업은 세대당 5000만원(자부담 1000만원 포함) 범위내에서 지원하는 노후주택보수, 상·하수도과 같은 기반시설 정비와 마을 경관개선 등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2~3년간 추진될 예정이다.

/의정부=강상준 기자 skang15@incheonilbo.com

평화누리길 청소년 탐험대 ‘첫걸음’

1차 230명 오늘부터 이틀간 DMZ 일대 안보체험

광복·분단 70주년을 맞아 DMZ 일대의 아름다운 생태계를 느끼고 안보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제1차 2015 평화누리길 청소년 탐험대’가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첫 체험 일정을 시작한다.

23일 도에 따르면 도내 중고생 및 대학생 230명으로 꾸려진 청소년 탐험대는 ‘평화를 탐하다’를 주제로 다양한 체험활동을 진행한다. 탐험대원들은 1박2일 일정으로 평화누리길 8코스 반구정길 걷기, 민통선 안을 달리는 자전거 퍼레이드, 도라전망대 등 안보시설 견학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체험할 예정이다.

참가자들에게는 탐험대용 티셔츠, 배낭, 모자, 팔토시 등 지급품과 완주증(메달)이 제공되며, 학생 참가자의 경우 자원봉사활동 8시간, 대학생 및 성인 지도자의 경우 자원봉사활동 16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우수참가자 및 우수지도자에게는 표창장이 수여된다.

이강석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청소년들이 남북분단 현장 체험을 통해 보다 굳건한 안보의식을

갖게 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며 “청소년들이 힘들고 어려운 역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훌륭한 체험활동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제2차 2015 평화누리길 청소년 탐험대 행사는 오는 8월 14일부터 15일까지 연천과 파주 일대에서 진행된다.

/윤재준·권준우기자 junwoo@kyeongin.com

오늘 평화누리길 탐험대 DMZ 탐방 중고·대학생 230명 자연생태 체험 나서

경기도는 올해 광복·분단 70주년을 맞아 24일, 25일 이틀간 파주 DMZ 일원에서 '제1차 2015 평화누리길 청소년 탐험대' 행사를 개최한다. 도내 중고생 및 대학생 230명이 참가하는 이번 행사는 '평화를 탐하다'라는 주제로 참가자들이

DMZ 일원의 생태·환경적 가치를 체험하고 안보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날 참가자들은 파주 울곡 습지공원에서 발대식을 가진 후 평화누리길 8코스 반구정길 걷기, 민통선 안을 달리는 자전거 퍼레이드에 참여한다. 이후 미

군변환기지를 리모델링한 민통선 내 최초의 숙박시설 캠프그리브스 DMZ 체험관에서 1박을 실시할 예정으로 레크리에이션은 1사단 군악대의 나라사랑 콘서트가 진행된다. 둘째 날에는 먼저 북한의 개성시와 송악산이 내려다보이는 파주 도라전망대

를 방문한 후, DMZ 자연생태를 체험할 수 있는 도라산 평화공원, 경의선 최북단 역인 도라산역, 남침용 군사도로인 제3땅굴 등을 찾아 평화와 통일의 의미를 되새길 예정이다.
민부근 기자 bgmin@kihoilbo.co.kr
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19.3 X 7.5 cm

경기북부 DMZ 일원 '평화누리길 청소년 탐험대' 개최

경기도는 오는 24~25일 1박2일간 경기북부 DMZ 일원에서 '제1차 2015 평화누리길 청소년 탐험대'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평화를 탐하다'라는 주제를 갖고 도내 각지에서 모인 중고생 및 대학생 230명이 참가하는 가운데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 DMZ 일원의 아름다운 생태·환경적 가치는 물론 안보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참가자에게는 탐험대용 티셔츠, 배낭, 모자, 팔토시 등 지급품과 완주증(메달)을 제공하며 학생 참가자의 경우 자원봉사활동 8시간, 대학생 및 성인 지도자의 경우 자원봉사활동 16시간을 인정받고 우수참가자 및 우수지도자에게는 표창장이 수여된다

제2차 2015 평화누리길 청소년 탐험대 행사는 다음달 14일과 15일 이틀간 연천과 파주일대에서 진행된다.

/의정부=강상준 기자 sjkang15@incheonilbo.com

11.6 X 6.9 cm